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화전민터 답사

진관훈 박사 "화전민, 화전길 통해 소통"

"제주에서는 그동안 생소했던 화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됐죠." "제주4·3이라는 제주의 아픈 역사 속에 한라산 중산간에서 살았던 옛 화전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난 5일 서귀포시 머체왓숲길과 추억의숲길에 숨겨진 화전민터에서 이뤄진 서귀포문화원의 '2025 서귀문화학교 향토역사반 현장답사'에서의 학생들 반응이다.

행사에는 양병식 서귀포문화원장을 비롯해 강사로 나선 진관훈 제주문화유산연구원, 30~80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 등 20명가량이 참석해 옛 화전민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관훈 박사는 머체왓숲길을 걸으며 목장밭(산전)을 일구며 메밀과 피 등을 재배했던 화전민의 생활상을 들려줬다. 숲길 곳곳을 지나며 안거리와 밖거리, 경계담, 눌담, 움막터, 피우소 등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였다. 추억의숲길에서는 몰방애에 얽힌 이야기와 계단식 밭을 일궜던 화전민의 애환도 꺼냈다.

진 박사는 "제주의 옛 화전민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중산간 마을마다 이어지는 화전길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지냈다"며 "제주화전은 제주에서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식 원장은 "이번 화전 현장답사는 척박한 땅에서 어렵게 살았던 옛 제주사람들의 모습을 현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서귀포문화원은 앞으로도 문화학교와 문화대학을 통해 보다 유익한 제주의 향토·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숙(63·남원읍 위미리)씨는 "서귀문화학교를 통해 그동안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제주 화전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김영숙(72·여)씨는 "화전민이 살던 집터와 통시 등을 보면서 소중했던 옛 기억들을 회상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4·3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알았던 화전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5분 도시 제주' 주민참여단 워크숍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행복생활권별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행복생활권 주민참여단'은 8개 행복생활권에서 공개모집과 읍면동 추천을 거쳐 총 200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민참여단은 내년 1월까지 '15분 도시 제주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해 필요 서비스를 주민 시각에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삼양동 민관협력 취약가구 환경 정비

제주시 삼양동은 지난 2일 삼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명금),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과 협력해 주거 취약가구의 마당 정비작업을 벌여 10t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했다.

해당 가구는 2020년 초부터 관리해오던 사례관리 대상자로, 외부와 접촉을 꺼려 복지 지원 연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 끝에 동의를 얻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 토론회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미애)은 지난 1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지역 내 고립가구의 실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너지공사 13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는 지난 4일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공사의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정년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특히 상반기 출산한 직원 2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고석준 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 선임

고석준(사진)씨가 최근 열린 제주민주동우회 정기총회에서 '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제주민주동우회는 2002년 1월 평화민주동지회 창립을 시작으로 2008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정해 23년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진보 성향의 조직이다.

고 회장은 "민주진보진영의 외연 확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보건복지분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농촌지도자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송응준)는 지난 4일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력 증대를 위한 대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실용농업 실무 AI활용 마케팅 특강과 더불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농업인 농작업 안전실천 홍보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실천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신청사 개청식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김경범)은 지난 4일 성산읍사무소 신청사 개청식을 현장에서 개최했다.

1982년 건립한 기존 청사 시설이 낡고 공간도 협소해 신축한 신청사는 총 171억원을 투입해 준공됐다.

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주민복지상담실, 2층에 읍장실·주민자치회 사무실·프로그램실·동아리실·공용사무실, 3층에는 대회의실·소회의실 등을 갖췄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이미용봉사 진행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희정)은 지난 2일 대한미용사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송봉숙)와 협력해 동홍3단지아파트 입주민 30명에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대한미용사회 자원봉사 덕분에 머리를 다듬고 청결 유지를 할 수 있다"며 "매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중앙로타리클럽 나눔 봉사활동

서귀포중앙로타리클럽(취임회장 고영화)은 최근 서홍동주민센터에 쌀 400kg,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쌀 300kg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이·취임식 행사를 통해 마련됐다.

고영화 회장은 지역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